

[논단]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고통 받는 인간의 치유*

한 영 만

[가톨릭대학교 교회법 교수·신부]

들어가는 말

본 론

1.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상황 진단
2. 고통받는 인간과 구원의 의미
 - 2.1. 인간 고통의 의미
 - 2.2. 고통에 처한 인간에 대한 구원과 치유
 - 2.2.1. 구원의 의미
 - 2.2.2.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풀어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3. 구원의 과정에서 영적 치유의 다양한 측면과 그 방식들
 - 3.1. 개인적 차원의 치유 접근
 - 3.1.1. 덕스런 생활의 중요성 재발견
 - 3.1.2. 영성 생활에서 덕스런 삶의 필요성
 - 3.1.2.1. 사추덕에 대한 이해와 실천
 - 3.1.2.1.1. 사추덕의 개념
 - 3.1.2.1.2. 사추덕의 종류: 현명, 정의, 용기, 절제의 덕
 - 3.1.2.2. 향주삼덕에 대한 이해와 그 실천
 - 3.1.2.2.1. 향주삼덕의 개념
 - 3.1.2.2.2. 향주삼덕의 종류
 - 3.2. 가톨릭교회 공동체 차원의 치유 접근
 - 3.2.1. 코로나 팬데믹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성사 집전의 문제
 - 3.2.1.1. 국가와 정부 기관의 제한 조치에 대한 신앙의 자유 회복 문제
 - 3.2.1.2. 제한된 조건에서 성사 집전 가능성 모색
 - 3.2.2.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애덕 실천 모색

나가는 말

들어가는 말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인류는 유래 없는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인류가 겪는 혼란과 두려움은 사회적 본

* 이 글은 2020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논문임.

성에 기초한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매우 심각한 제한을 주고 있다. 이 상태가 언제 종료될지도 모르는 어둡고 두려움의 터널 속에서 인류는 생활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인간의 이런 상태는 고통 속에 처한 인간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감염병이라는 질병이 위협하는 인간 육체와 현세적 생명에 대한 지속적 불안은 인간 정신과 그 영혼의 고통을 심화시킨다. 비록 육체적이고 의학적인 차원의 질병으로 초래된 고통일지라도 그것은 단지 인간의 육체적 측면에만 국한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 고통은 정신적, 영신적 차원에서도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재 인류가 빠져있는 고통이란 현실은 보다 더 깊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숙고될 필요가 있고 인간 구원과 연관시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신앙적 차원에서 볼 때 현재 가톨릭 신자들은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은총을 전달하는 성사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느님과 맺는 관계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 하느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할 우리 이웃과의 단절을 심화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모든 인간은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 차이는 보이지만 고통에서 해방되어 행복하기 바란다. 그래서 인간은 나름 건강, 명예, 부귀 등을 추구한다. 그러나 인간이 궁극적으로 행복하려면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해야 한다. 인간의 궁극적 행복이란 인간이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그분의 영광스런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상태를 뜻한다.¹⁾ 인간은 ‘궁극적 행복, 완전한 행복’, ‘지복’(至福)의 상태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때 궁극적 자기완성에 도달하게 된다.²⁾

모든 인간의 소명은 신앙의 빛 안에서만 온전히 밝혀질 수 있다고 교회는 가르친다.³⁾ 모든 인간은 하느님과 친교, 곧 일치하도록

1) 참조: Jordan Aumann(조던 오먼), 이흥근 역, 『영성신학』, 분도출판사, 1987, 45쪽.

2) 참조: 같은 책, 44쪽.

3) “신앙이야말로 모든 것을 새로운 빛으로 밝혀 주고 인간의 소명 전체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 주며, 따라서 참으로 인간적인 해결로 마음을 이끌어 준다.”

부름 받은 존재이며 이것이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요 소명이다: “인간 존엄성의 빼어난 이유는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도록 부름 받은 인간의 소명에 있다.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과 대화하도록 초대받는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되고 언제나 하느님의 사랑으로 보존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결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 사랑을 자유로이 인정하고 자기 창조주께 자신을 맡겨 드리지 않고서는 인간은 온전히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없다.”⁴⁾

이 글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확산된 상황에서 덕행의 실천을 통해 인간이 그 고통을 극복하고 하느님을 만나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나름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간의 소명은 하느님과의 친교 속에 머무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하느님과 가장 완전히 결합된 상태에 이른 인간을 완덕에 이르렀다고 말한다.⁵⁾ 특별히 애덕을 통하여 하느님과 이웃을 완전하게 사랑하는 단계에 도달할 때 인간은 완전히 하느님과 일치하게 된다. 애덕은 다른 덕행들과 분리되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여러 기능들과 연결된 중요한 덕행들의 연마와 습득, 그리고 실천을 통해 증대된다. 물론 인간은 자신이 연마한 덕을 통해서만 하느님과 완전한 일치에 이를 수 없다. 하느님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은총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작용하여 우리를 하느님과 완전한 일치의 상태로 결합시켜주기 위해서 유공선행(有功善行)의 관점에서 덕행의 습득과 그 실천이 요구되는 것이다.⁶⁾

덕행의 실천을 통한 하느님과의 일치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가능하며 하느님과 완전한 일치에 이를 때 인간은 고통을 극복하면서 참된 행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죽음을 당하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길을 덕행의 실천을 통하여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참된 행복의 길로 들어서는 방법일 수 있다.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사목현장」(Gaudium et Spes), 11항.

4) 같은 글, 19항.

5) 참조: 조던 오먼, 앞의 책, 121쪽.

6) 참조: 같은 책, 287쪽.

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을 뜻하며 궁극적으로 그분을 닮는데 있다.

본 론

1.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상황 진단

의학적으로 볼 때 감염이란 “미생물인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정착한 것”⁷⁾ 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 한국의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제1급부터 제4급으로 감염병은 구분되며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 감염대상, 생물 테러, 성 매개, 인수(人獸)공통 및 의료 관련 감염병으로 구분된다.⁸⁾ 감염병예방법 제2조 2호는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율이 높거나 혹은 집단 발생의 염려가 큰 병으로 음압격리와 같은 강도 높은 격리를 요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국내로 유입되어 유행이 예견되는 긴급한 예방,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부류의 감염병도 포함된다.⁹⁾

이와 같이 감염병은 처음 감염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접촉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어 나가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장되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이라는 공공부분에 속하는 문제가 된다. 그리고 사회적 유행병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국가의 안녕이 위협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격리 조치 및 집합 제한을 국민에게 내리기도 한다. 그래서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¹⁰⁾

7) 박정일,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조치에 관한 소고」, 『의료법학』, 제16권 제1호(2015), 대한의료법학회, 291쪽.

8) 참조: 감염병예방법 제2조 1호.

9) 참조: 감염병예방법 제2조 2호.

10) 참조: 김은일,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감염병에 대한 헌법적 해석」,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7권 제2호(2019), 한국의료법학회, 123쪽.

감염병은 그 범위에 따라 엔데믹(endemic: 일정한 좁은 지역에 퍼진 경우), 에피데믹(epidemic: 광범위하게 퍼진 경우),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규모로 대유행하는 경우) 상태로 구분한다. 팬데믹 상황에서는 각국의 협력이 필요하고 국가 간 협력 증진을 위해서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도 중요하다.¹¹⁾ 현재 WHO는 코로나19를 팬데믹 상황으로 선언한 상태다.

교황청이 코로나19 감염병에 보인 반응은 우선 그것이 보이지 않게 온 인류를 위협하면서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았고 신체적이며 정신적인 고통을 통해 불확실성의 두려움 속으로 인류를 빠뜨렸다는 것이다.¹²⁾ 그러나 한편 코로나19는 인간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만감을 벗겨내면서 자신의 허약성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도 지적한다.¹³⁾ 더 나아가 프란치스코 교황은 하느님께서는 이 기회에 우리가 보다 더 연대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파스카의 신앙을 다시 살도록 초대하는 시기라고도 말한다.¹⁴⁾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 팬데믹 현상을 여러 가지 면에서 바라본다. 우선 코로나19는 사회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병리현상을 동반했다는 점이다. 특별히 교황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사회적 특징, 곧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한다.¹⁵⁾ 교황의 관점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고 세계적 양극화 현상을 더욱 증대시킨다고 본다.¹⁶⁾ 또한 코로나19는 일자리를 더욱 상실하게 만들면서 경

11) 박정일, 앞의 글, 292-293쪽.

12) 교황청 내사원, “전 세계적 질병 확산의 현 상황에서 신자들에게 특별 대사를 수여하는 교령”, [http://www.cbck.or.kr\(2019.03.19\)](http://www.cbck.or.kr(2019.03.19)).

13) 참조: 교황 프란치스코, “팬데믹 시기를 위한 특별 기도회 묵상”, [https://w2.vatican.va/content/francesco/it/homilies/2020/documents/papa-francesco_20200327_omelia-epidemia.html\(2020.09.27\)](https://w2.vatican.va/content/francesco/it/homilies/2020/documents/papa-francesco_20200327_omelia-epidemia.html(2020.09.27)).

14) 참조: 같은 글.

15) 참조: 교황 프란치스코, “일반알현”, 2020년 8월 12일, [http://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audiences/2020/documents/papa-francesco_20200812_udienza-generale.html\(2020.10.13\)](http://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audiences/2020/documents/papa-francesco_20200812_udienza-generale.html(2020.10.13)).

16) 참조: 교황 프란치스코, “일반알현”, 2020년 8월 19일, <http://www.vatican.va/content/>

제적 차별을 가중시키고 있고 이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에서 커다란 불평등이 증대되고 있다고 교황은 지적한다.¹⁷⁾

현재 인류는 아직까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서 일부 국가들은 전 국민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기도 했고 대한민국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종교 집회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제한받게 됨으로써 국민의 신앙의 자유권이 제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비록 코로나19란 질병이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육체적 측면에 고통을 주는 것이지만 그 정신적, 영신적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인간을 고통에 빠뜨리고 중국에는 죽음의 두려움을 만나게 한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 같다.

2. 고통받는 인간과 구원의 의미

2.1. 인간 고통의 의미

인간의 삶은 어쩌면 고통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고통은 인생의 여러 순간, 다양한 차원에서 인간에게 다가오며 그것은 인간의 현세적 실존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통이란 주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을 언제나 따라다니는 보편적인 문제이고, 자신을 넘어서 보다 높은 차원으로 열려있는 인간의 초월적 성격에 속해있는 문제이기도 하다.¹⁸⁾

고통은 의학적 차원에서 인간이 만나는 육체적 고통과 인간의

francesco/it/audiences/2020/documents/papa-francesco_20200819_udienza-generale.html (2020.10.13).

17) 참조: 교황 프란치스코, “일반알현”, 2020년 8월 26일, http://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audiences/2020/documents/papa-francesco_20200826_udienza-generale.html (2020.10.13)

18)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교서 『구원에 이르는 고통』,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4, 2항.

또 다른 부분인 정신적 고통으로 구별된다. 이것은 이중 구조, 곧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인간이 직면하는 고통 현상을 말해주는 구별이라 하겠다.¹⁹⁾ 그런데 고통은 질병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고 훨씬 더 복잡한 동시에 훨씬 더 깊다.²⁰⁾ 인간의 정신적 고통은 모두 설명될 수 없는 보다 복잡한 차원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정신적 고통의 폭과 다양성은 숫자적으로나 형태상으로 육

19)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합성된 실체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은 영혼과 육체라는 본질적 두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혼은 형상의 기능을, 육체는 질료의 기능을 수행한다. 인간 행위들은 육체나 영혼이 배타적으로 서로 상관되지 않고 작용하지 아니하며 둘이 함께 작용한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대이교도를 거슬러’에서 비록 영혼이 육체가 간여하지 않는, 즉 인지하는 행위처럼 완전히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인간 행위에는 영혼과 육체에 공동된 행위들도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두려워하는 것, 느끼는 것, 분노하는 것 등이 그런 것들이다. 이런 행위들은 육체에 속한 특정한 영역이 변형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영혼과 육체의 공동 작용들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그것이 존재인 한 하나의 실체인 인간을 이룬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합성된 작용은 하나로 합성된 존재를 전제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론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극복하지 못했던 영혼과 육체와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준다. 플라톤은 육체와 영혼의 결합을 우연적인 것으로 여김으로써 결과적으로 영혼의 자립성을 부정하는 격이 되었다. 그러나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육체보다 우위성을 지닌 영혼 고유의 영적 기능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판단하는 것, 추론하는 것, 숙고하는 것,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등은 육체에는 결여되어 있고 오직 배타적으로 영혼에만 속한 고유한 기능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자체로 작용 기능을 가진 것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존재의 본질(essentia)에 더 집중해서 사물의 현상을 설명하려던 아리스토텔레스의 한계를 넘어 ‘존재 현실’(actus essendi)에 초점을 맞추어 존재는 본질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과 존재 현실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질료와 형상은 하나로 구성된 존재를 지니는 것이지만 질료와 형상이 따로 따로 고유한 존재를 지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간은 질료와 형상의 관계의 도식에 따라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실체이고 영혼은 신체의 형상으로서 신체와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신체는 질료적 관계에서 영혼과 결합되어 있는데 신체가 영혼에게 개별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영혼은 신체에 대해서 인간으로서의 완전성을 제공하여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본질 규정성을 부여한다. Cf. St. Thomas Aquinas, *In I Sent*, Bologna: ESD, 8,5,2, ad 3; St. Thomas Aquinas, *Summa contra Gentiles*, Bologna: ESD, II, 57; Giovanni B. Mondin., *Storia dell'Antropologia Filosofica*, vol.1, ESD, 2001, pp.280-282; 참조: 조반니 바티스타 몬딘, 허재운 역, 『인간: 철학적 인간학 입문』, 서광사, 1996, 262, 286쪽.

20)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앞의 책, 5항.

체적 고통보다 더 심각하고 그 정체도 덜 파악되어 있으며 그 치유 방법도 덜 발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²¹⁾

또한 고통의 문제는 ‘악(惡)’이라고 하는 주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인간은 악을 체험할 때마다 고통을 겪는다고 말하는데 악이란 주제는 고통이란 주제와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악이란 선의 어떤 결핍 혹은 제한이다. 인간이 악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바로 자기에게 속한 선익이 박탈되거나 단절되어 그 선익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으로는 당연히 참여하거나 박탈되지 말아야 할 선익이 결핍될 때 인간이 고통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다.²²⁾

인간은 개별적으로 고통을 겪고 살아가지만 그 사회적 본성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는 인간 상호간의 연대 또한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각 사람의 인생을 주목해 보면 고통 없는 순간이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고통 없는 인간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고 함께 고통을 느끼며 서로를 도우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자연스런 인간의 마음일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태어난 교회는 고통의 길을 걷는 인간을 만나도록 노력해야 하고 고통 받는 인간은 교회가 함께 걸어야 할 ‘길’²³⁾이 된다. 곧 고통 받는 인간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길인 것이다.²⁴⁾ 이런 관점은 교회가 고통 받는 사람에 대해 자비심을 갖고 애덕을 실천하도록 촉구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21) 참조: 같은 책, 5항.

22) 참조: 같은 책, 7항.

23)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인간의 구원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9, 14, 18, 21, 22항.

24)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구원에 이르는 고통』, 3항.

2.2. 고통에 처한 인간에 대한 구원과 치유

2.2.1. 구원의 의미

구원이란 일반적으로 전에 소유했다가 상실한 것을 어떤 대가를 치루고 다시 얻는 행위를 뜻한다. 인류 구원을 위한 행위란, 죄로 타락한 인류가 중재자 그리스도의 보상과 공로로써 악마의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고 하느님과의 친교를 다시 회복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²⁵⁾ 다시 말해 구원은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뜻하고 그분의 보상으로써 우리 죄를 지워주셨고 당신 공로로써 잃었던 은총을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셨다는 것을 뜻한다. 죄를 지음으로써 악마의 종이 되었던 인간은 하느님과의 친교와 영원한 행복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했었으나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을 통하여 악마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는 은총의 상태를 회복하게 되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첫 번째 회칙 ‘인간의 구원자’(Redemptor hominis) 1항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원자이시며 우주와 역사의 중심이시다.”라고 선언된다. 이 회칙은 인간의 구원의 중심에 육화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인간은 그분을 통해서 구원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²⁶⁾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지니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분 외에 아무도 다른 구세주는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현대의 인류는 다양한 방면에서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엄청난 상태의 혼란, 특히 죄의 혼란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인류를 구원하고 본래의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누리던, 죄로부터의 자유를 회복시키고자 사람이 되시어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 하느님과의 일치를 회복시켜 주셨다.

25) Cf. Adolf Tanquerey, *Brevior Synopsis Theologiae Dogmaticae*, Desclée & Socii. 1946, pp.446-447.

26)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인간의 구원자』, 1항, 19-20쪽.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며 생명이다.’²⁷⁾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이 중요하게 갈망하는 것은 두 가지로서 그 첫째는 진리에 대한 인식이고 둘째는 존재의 영속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이며 길이며 동시에 생명 자체이다.²⁸⁾

2.2.2.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풀어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인간 구원이란, 궁극적으로 인간이 악에서 해방됨을 뜻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 고통의 문제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성경에 따르면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²⁹⁾ 즉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악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인간 세상에 당신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다. 인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멸망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을 통해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다.³⁰⁾

인간이 직면한 최대의 고통은 육신적 고통을 포함하여 비록 정신적 고통이라고 해도 이 세상에 한정된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곧 영생을 상실하는 것이다. 영원한 멸망이야말로 인간이 직면해 있는 결정적인 악이고 고통이다. 이것은 죄와 죽음이라 어둠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와 죽음을 결정적으로 정복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것이다.³¹⁾

고통과 죄를 단순히 결합시켜서 고통은 죄의 결과라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고통과 죄를 분리시킬 수 없는 것도 사실

27) 요한 14,6.

28) Cf. St. Thomas Aquinas, *Comnt. Evang. S. Johannis*, Bologna: ESD, 2019, 14.

29) 요한 3,16.

30)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구원에 이르는 고통』, 14항.

31) 참조: 같은 책, 14항.

이기 때문에 인간 고통은 죄와 죄의 뿌리에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기준을 버릴 수 없다.³²⁾ 어떤 면에서 볼 때 죽음은 인간 고통의 종식을 가져온다. 그것은 인간의 육체적 유기체와 더불어 인격 전체의 해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나 인간 영혼은 그 육체에서 분리되어 존속한다. 반면 태초에 죄를 범한 인간의 육체는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점점 분해되어 간다.³³⁾ 따라서 죽음이라고 하는 악은 인간에게 결정적인 성격의 고통으로 다가온다.³⁴⁾

죄와 죽음에서 인간을 해방하시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죄인처럼 돌아가셨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이기셨으며 당신 부활로써 종말에 있을 인간 육신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어 인간에 대한 죽음의 지배도 종식시키셨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과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부활은 인간이 하느님과 일치하는 참된 행복의 결정적 상태이며 이런 상태에 인간이 들어갈 때 고통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다.³⁵⁾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 세상에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인간을 현세적 고통에서 결정적 방법으로 완전하게 해방시켜주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희망의 빛을 던져주며 인간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곧 복음이 된다. 인간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새로운 전망 안에서 고통의 근원적 뿌리가 되는 죽음과 죄라는 실재를 만날 수 있게 된다.³⁶⁾

3. 구원의 과정에서 영적 치유의 다양한 측면과 그 방식들

그리스도의 치유 행위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가득차고 오직 거기에만 희망을 두면서 서로를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이다.³⁷⁾ 그리스도께서는 의학적 차

32) 참조: 같은 책, 15항.

33) 참조: 창세 3,19.

34)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앞의 책, 15항.

35) 참조: 같은 책, 15항.

36) 참조: 같은 책, 15항.

37) 참조: 교황 프란치스코, “일반알현”, 2020년 8월 5일, <http://www.vatican.va/content/>

원에서 인간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시면서 새 생명을 선사하신다. 그분은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치유하시면서 인간의 사회적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신다.³⁸⁾

인간이 구원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측면과 방식들이 고려될 수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제한된 상황에서 고통 받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별하여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다.³⁹⁾ 이 상황에서 인간 스스로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겪는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고 치유해 주는 선물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덕행들이다. 그러나 교회가 신앙의 관점에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덕을 말하기에 앞서서 인류는 인간 이성에 기초한 덕⁴⁰⁾스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해 왔고 그 덕들 중에서 ‘현명’ ‘절제’ ‘용기’ ‘정의’라는 사주덕(四主德, cardinal virtues)의 연마를 주장해 왔다.⁴¹⁾ 철학사에서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관점이 아니더라도 인류는 덕행을 연마함으로써 도달해야 할 이상적 인간상에 도달하여 행복해 질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⁴²⁾

francesco/it/audiences/2020/documents/papa-francesco_20200805_udienza-generale.html (2020.10.13).

38) 참조: 같은 글.

39) 참조: 장영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삶의 기술』, 서광사, 2018, 145~146쪽.

40) 비록 우리가 이 글에서 그리스도교적 관점의 덕을 중심으로 고찰하겠지만 철학사에 있어서 우리말의 덕(ἀρετή, virtue)이란 단어가 현재와 같이 도덕적 성격의 것이 아니었고 가치중립적 성격의 용어였다는 점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것은 ‘탁월성’ 곧 인간이 지닌 나름의 기능을 최대한 잘 발휘한 것을 의미했다. 참조: 같은 책, 10~11쪽.

41) 언급한 네 가지 덕행들은 플라톤이 자신의 저서 ‘국가’에서 소개한 것으로 교회는 아우구스티노를 거쳐 이것들을 인간적 덕행들 혹은 윤리적 덕행들이라고 소개하여 신앙인들도 연마해야 할 중요한 덕목들로 여기고 있다. 참조: Frederick C. Copleston(프레드릭 코플스턴), 김보현 역, 『그리스 로마 철학사』, 북코리아, 2015, 293쪽; 장영란, 앞의 책, 91쪽.

42) 우리가 덕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덕에 대한 왜곡된 개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덕을 쉽게 왜곡할 수 있는 것은 본성적 차원에서

또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에 이르게 되는 것은 개인적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의 접근, 곧 교회 공동체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3.1. 개인적 차원의 치유 접근

3.1.1. 덕스런 생활의 중요성 재발견

플라톤에 따르면 행복은 덕을 추구함으로써 획득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인간의 참된 행복은 최고선을 소유하는데 있다.⁴³⁾ “인간의 이런 최고선은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서 인격의 참다운 발전이며 인간 영혼의 올바른 수양이며, 삶의 일반적이고 균형 잡힌 행복이다.”⁴⁴⁾ 인생의 목표는 행복한 삶, 좋은 삶이며 이것은 인간 자신의 행위를 자연의 법칙 곧 이성이 요구하는 것과 일치시켜 생활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이성을 부여받았고 “이것은 인간에게 짐승에 대한 우위성을 제공하는 능력”⁴⁵⁾인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자연을 따라 살아가는데 자신을 방해하는 비합리적이고 비자연적인 곧 비이성적인 욕구와 혐오, 충동이나 속임수와 성급한 판단 등에 의해서 그 고유한 본성인 이성에 따른 삶을 살기 어렵다는 점이다.⁴⁶⁾ 이성적 동물인 인간이 자신의 이성에 따라 산다는 것

지나친 윤리주의에 빠지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덕을 초본성적 차원에서만 국한시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덕은 본성적 차원에서 인간의 본래 모습에 걸맞게 인간을 고양시키는 것이며 초본성적 차원에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느님과 의 일치를 가능하게 하는 ‘최고의 잠재력’(ultimum potentiae)인 것이다. 그러므로 덕스런 인간은 그 본성적 차원에서든 초본성적 차원에서든 인간으로서 ‘그래야 되는 상태’로 될 수 있는 궁극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동시에 그 가능성이 온전히 실현된 상태에 놓인 인간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덕스런 인간은 최고의 선이신 하느님을 향해 내적 지향으로부터 외적인 행위에 이르기까지 이성의 차원과 신앙의 차원에서 최고의 잠재력을 실현시킨 인간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참조: Josef Pieper(요셉 피퍼), 김형수 역, 『그리스도교의 인간상 — 덕에 대하여』,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8, 42~43쪽.

43) 참조: 프레드릭 코플스틴, 앞의 책, 293쪽.

44) 같은 책, 291쪽.

45) 같은 책, 526~527쪽.

은 자연에 따른 삶을 사는 것을 뜻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에 따르는 삶이란 이성에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옳다. 그러므로 목표에 대한 제논의 정의는 자연에 순응하여 사는 것인데, 이것은 덕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자연이 나아가는 곳은 덕이기 때문이다.”⁴⁷⁾

따라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이성의 명령에 따른 덕스런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플라톤은 인간 영혼의 기능을 욕망, 기개, 이성으로 구별하면서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점을 펼치고 있다.⁴⁸⁾ 이성이 욕망과 기개를 탁월하게 지배하는 삶이 덕스런 삶이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좋고 올바르게 결국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세 가지 기능에 상응하는 덕으로서 ‘절제’와 ‘용기’와 ‘현명’, 그리고 이 덕행들이 조화를 이루면 ‘정의’를 갖추게 된다고 말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덕들을 사주덕(四主德) 혹은 사추덕(四樞德)이라고 한다.⁴⁹⁾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플라톤이 주장하고 있는 좋은 것에 대해 생각을 같이 한다. 그는 인간 영혼의 기능을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으로 구분하면서 비이성적인 부분 곧 성품에 관한 탁월성과 이성적인 부분, 즉 실천적 지혜를 탁월하게 발휘할 때 행복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비이성적인 부분의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할 때 이를 ‘성격적 탁월성’이라고 보았고 이성적 부분의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할 때 이를 ‘지적 탁월성’라고 했다.⁵⁰⁾ ‘성격적 탁월성’은 그 자체로는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본성에 반하는 것도 아니며 본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습관을 통해 완성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보충 설명한다:

46) 참조: 장영란, 앞의 책, 144쪽; 프레드릭 코플스틴, 앞의 책, 530-531쪽.

47) 프레드릭 코플스틴, 같은 책, 527쪽.

48) 참조: 같은 책, 296-297쪽.

49) 참조: 장영란, 앞의 책, 79-80쪽.

50) 참조: Aristoteles(아리스토텔레스), 강상진·김재홍·이창우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도서출판 길, 2017, 51쪽.

“정의로운 일들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며, 절제 있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절제 있는 사람이 되고, 용감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⁵¹⁾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말을 통하여 전하고 싶은 점은 실천적 지혜가 성격적 탁월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격적 탁월성 없이 실천적 지혜를 가진 자가 될 수 없고, 실천적 지혜 없이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⁵²⁾

3.1.2. 영성 생활에서 덕스러운 삶의 필요성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때 확연히 구별되는 것은 바로 이성적, 정신적 기능이라고 할 것이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육체를 갖고 있으나 영혼으로 구성된 결합체이다. “지성적 원리라고 하는 인간 영혼은 불사불멸한다.”⁵³⁾ 육체의 실제적 형상으

51) 같은 책, 52쪽.

52) 참조: 같은 책, 231쪽.

53) St.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e*. Bologna: ESD. 2014, I, 75, 5. 존재하던 어떤 것이 소멸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된다. 첫째는 어떤 존재자의 본성이 소멸되기 때문이고 둘째는 소멸될 수 있는 어떤 다른 것에 그 존재자가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존재자가 의존해 있던 소멸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사라질 때 존재자 역시 소멸되는 것이다. 물체는 그것을 구성하는 질료가 다른 실체적 형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본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소멸된다. 물질적 형상 곧 그 자체로 존재를 갖지 않고 합성체의 존재에 참여하는 물질적 형상은 자신이 의존되어 있는 다른 것이 소멸되기 때문에 사라진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질료와 형상으로 합성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순수 형상이며 자립적이기 때문에 첫째 방식으로나 두 번째 방식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지성적 원리라고 하는 인간 영혼은 신체가 간여하지 않는 그 자신의 고유 작용을 갖고 있고 작용은 언제나 존재에 정비례한다. 다시 말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자립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적 원리는 질료와 형상으로 합성된 무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종들(species)이 지적 원리 그 자체 안에 비물체적인 방식으로 수용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성이 질료와 물질적인 조건들로부터 취하여 알게 된 보편적인 것들을 수용한다는 것을 통해 밝혀진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지하는 지성적 원리는 존재를 지닌 형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지성 원리인 영혼은 불멸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지고 그것은 일종의 신적이고 영원한 것이라 하겠다. 이런 논거에 이어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인간이 죽지 않으려는 자연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자연적 욕구가 바로 영혼이 불멸한다는 일종의 표징이라고 주장한다. Cf.

로서 영혼을 지닌 인간이 초자연적 세계로 들어가 하느님의 생명을 얻어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느님의 은총, 성화은총이 필요하다. 이 은총은 세례 성사를 통하여 인간 영혼에 상주하게 된다. 또한 하느님은 인생의 여러 순간에 인간 구원에 필요한 다양한 도움들을 주는 조력은총을 인간에게 선사하신다.⁵⁴⁾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서 덕행을 실천하여 영혼의 기능을 보다 더 고양시켜야 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데 보다 더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인간은 자신 안에 내주하는 성화은총에 힘입어 덕행을 실천함으로써 영혼의 주요 기능인 지성과 이성을 초자연적 차원으로 상승시키게 되고 보다 더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⁵⁵⁾ 이렇듯 덕행의 연마는 인간의 성화, 곧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삼위의 원의에 따라 그 합당한 자녀들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요구되는 것이다.

3.1.2.1. 사추덕에 대한 이해와 실천

3.1.2.1.1. 사추덕의 개념

현명, 정의, 절제, 용기라고 하는 사주덕 혹은 사추덕이라고 하는 네 가지 중요 덕들은 윤리적 덕행들이라고도 한다. 신학적 덕행 곧 믿음, 희망, 애덕인 향주삼덕을 통해 인간의 여러 기능이 초자연적 질서를 향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선택하여 영혼의 기능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윤리적 덕행들은 바로 이런 역할을 수행한다.⁵⁶⁾

St. Thomas Aquinas, *Le questioni disputate*, Bologna: ESD, 2001, q.14; St. Thomas Aquinas, 이재룡·이경재 역, 『영혼에 관한 토론 문제』, 나남, 2001, 311~312쪽; Sofia V. Rovighi(소피아 로비기), 이재룡 역, 『성 토마스의 철학적 인간학』, 가톨릭 출판사, 2014, 66~67쪽.

54) 참조: 조던 오먼, 앞의 책, 91~94쪽.

55) 참조: 같은 책, 77쪽.

56) 참조: 같은 책, 321쪽.

3.1.2.1.2. 사추덕의 종류: 현명, 정의, 용기, 절제의 덕

현명의 덕은 다른 모든 윤리적 덕행들을 지도하는 지성의 덕행이며 모든 ‘덕들의 마부’(auriga virtutum)라고도 불리운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인간 행위들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올바른 이성이라고 정의 내린다. 습득되는 현명의 덕은 인간 이성의 자연적 빛으로 조명되며, 주입된 현명의 덕은 신앙의 빛으로 조명된 덕이다. 습득되는 현명의 덕은 인간 의지와 감각 기능을 이성적으로 교육하고 절제시킨다.⁵⁷⁾

현명의 덕은 모두 숙고, 실천적 판단, 실행이라는 세 가지 행위로 구성된다.⁵⁸⁾ 숙고는 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실천적 판단은 보다 나은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여 선택을 직접적으로 지도한다. 그리고 실행은 선택한 방법들을 실행에 옮기도록 지도한다.⁵⁹⁾ 특별히 현명의 덕에 있어서 의지의 올바른 지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모든 윤리적 덕행들이 어떤 선을 추구하듯이 현명의 덕 또한 선을 추구하는데 특히 구체적이고 직접적 방법으로 최종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을 숙고하고 판단하여 실행에 옮기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 행위는 최종 목적인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⁶⁰⁾

정의의 덕은 “잘못된 자기에 혹은 무질서한 자신에 대한 애착을 끊고 다른 이들의 권리를 그들에게 돌려주는 항구한 의지 안에 내재한다.”⁶¹⁾ 이 덕은 이웃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실천적인 질서에 속하는 덕행으로서 이웃과 사회에 악을 저지르지 말고 선을 행하게 하는 덕이다.⁶²⁾ 또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하느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경배나 흠송하는 행위는 정의의 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라 하

57) Cf. St.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 II-II, qq.47-57.

58) Cf. R. Garrigou-Lagrange, *La sintesi tomistica*, Fede & Cultura, 2016, p.358.

59) Cf. St.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 II-II, q.47, a.8.

60) Cf. M. Belda, *Giuditi dallo Spirito di Dio: Corso di Teologia spirituale*, EDUSC, 2009, pp.317-318.

61) R. Garrigou-Lagrange, *op.cit.*, p.360.

62) 참조: 조던 오먼, 앞의 책, 326쪽.

겠다.⁶³⁾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덕을 네 가지로 구별했다. 첫째는 교환정의다. 이것은 각 개인이 서로 간의 권리와 의무에 충실하여 타인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고자하는 개인의 항구한 의지라고 하겠다.⁶⁴⁾ 둘째는 분배정의다. 이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들 사이에서 사회적 혜택과 임무를 구성원들의 공로나 필요에 따라서 적당하게 배분하는 덕행이다.⁶⁵⁾ 셋째는 법적정의다. 이 덕행은 사회의 공동선과 직접 연관된 덕행으로서 정당한 법률들과 질서를 설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덕이다. 이 덕을 법적정의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회의 법에 근거하여 법 규정의 준수를 요구하는 정의이기 때문이다.⁶⁶⁾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정의를 정치적 현명함이라고도 지칭했는데 왜냐하면 국가 원수나 그 공무원들이 공동선을 유념하여 정당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것을 준수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⁶⁷⁾ 넷째는 형평의 덕이다. 이것은 정의의 형태 중에서 가장 높은 경지의 정의로서 법률의 문자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정신, 의도를 고려하여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서 엄격한 법 적용이 초래할 수 있는 불의를 피하기 위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⁶⁸⁾

용기의 덕은 위험 중에도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며 올바른 이성 에 따라서 담대함을 조절함으로써 불합리한 두려움에 빠지지도 분별없는 공격을 행하지도 않도록 하는 덕이다.⁶⁹⁾ 용기의 덕에는 두 가지 중요한 행위가 있는데 ‘견디는’ 즉 인내하는 행위와 공격하는 행위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sustinere est difficilius quam

63) 참조: 같은 책, 330쪽.

64) 참조: 같은 책, 328쪽.

65) Cf. St.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 II-II, q.61, aa.1-2.

66) 참조: 조던 오먼, 앞의 책, 327쪽.

67) Cf. St.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 II-II, q.58, aa.6-7.

68) 법률의 문자에 따라 복잡한 상황에서 엄격한 적용을 할 경우에 라틴어의 격언 “Summum ius, summa iniuria, 최고의 법은 최상의 불의다.”를 기억해 볼 만하다. 다시 말해서 형평은 문자적 의미에서 법률이 아니라 지혜와 좋은 의미와 부합하는 덕행이고 이것은 마치 보다 더 고차원의 애덕과 유사한 면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Cf. R. Garrigou-Lagrange, *op.cit.*, p.360.

69) Cf. *Ibid.*, p.362.

aggredi, 공격하는 것보다 인내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다.”⁷⁰⁾ 공격하는 것보다 인내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이유는 우선 인내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보다 강한 자와 맞서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유는 공격하는 이는 아직 고통 속에 있지 않고 악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반면에 인내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고통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셋째로 인내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용기의 덕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지만 공격은 한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⁷¹⁾

절제의 덕은 욕정의 충동, 특히 미각과 촉각을 통한 쾌락을 절도 있게 규제하는 덕이라 하겠다. 이 덕을 통하여 인간은 자신에게 합당한 올바른 이성의 원칙에 따라서 감각적 쾌락을 절도 있게 규제하게 된다. 절제의 덕은 음식이나 음료에 있어서 절제, 정결, 동정, 겸손 등의 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⁷²⁾ 절제의 덕은 지상 재물에 대한 애착을 조절하고 인간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만드는 덕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⁷³⁾

3.1.2.2. 향주삼덕에 대한 이해와 그 실천

3.1.2.2.1. 향주삼덕의 개념

앞서 다룬 윤리적 덕행들, 곧 사추덕은 개인의 성덕과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과 연관하여 인간의 기능을 합당하게 사용하고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⁷⁴⁾ 지금 다루는 믿음, 희망, 애덕이라고 하는 덕행들은 인간 개인이 하느님과 직접 관련을 맺게 한다는 면에서 향주삼덕(向主三德)이라고 하는 것이며 하느님과 직접 관련된 덕행들이란 뜻에서 신학적 덕행이라고 한다.⁷⁵⁾ 향주삼덕은 인간의 올바른 이성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윤리적 덕행들과 달리

70) St.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 II-II, q.123, a.6.

71) Cf. R. Garrigou-Lagrange, *op.cit.*, p.362.

72) Cf. *Ibid.*, pp.363~364.

73) Cf. M. Belda, *op.cit.*, p.324.

74) 참조: 조던 오먼, 앞의 책, 99, 102쪽.

75) 참조: 같은 책, 227~228쪽.

성화은총을 통하여 인간을 자연 질서에서 초자연 질서로 이끌어 간다는 면에서 초자연적, 신학적 덕행들이라고 한다.⁷⁶⁾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향주삼덕은 하느님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 덕행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느님께 직접 향하도록 만든다.⁷⁷⁾

3.1.2.2.2. 향주삼덕의 종류

믿음의 덕은 “하느님의 은총의 활동과 도움을 입어 하느님께서 계시하시는 바가 진실임을 — 그 내적 진리가 이성의 자연적 빛에 따라 자세히 살피서가 아니라 오직 계시하시는 하느님 자신의 권위로 인해 명백하기 때문에 — 믿게 되는 초자연적 덕이다.”⁷⁸⁾ 면밀하게 바라보아야 할 점은 신앙은 바로 하느님이 계시하신 바를 믿는 행위, 곧 신앙행위이며 이 행위는 인간의 지성적 동의를 요구하지만 인간 지성이 하느님의 계시를 믿는 행위는 그 지성 자체의 추론이나 어떤 증거에 기초한 것이 아닌 하느님 자신의 권위에 의지하여 인간 의지를 하느님께 종속시키는 행위란 점이다.⁷⁹⁾ 믿음의 덕은 죄로 물들었던 인간이 의화 되는 시작이고 기초이며 뿌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⁸⁰⁾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주입된 믿음의 덕을 통하여 하느님과 최초의 접촉을 갖게 되고 하느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며, 이 믿음을 기초로 다른 모든 덕행들이 건물처럼 세워진다. 그리고 믿음은 거기에 뿌리를 둔 모든 덕들이 애덕으로 불타오르도록 작용하여, 하느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소죄까지 피하고 현세 사물의 애착을 끊으면서 마음을 하느님께 향하도록 만든다.⁸¹⁾

희망의 덕은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초자연적 행복을 갈망 하도록 한다. 인간이 영원한

76)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 1528, 1529, 1561항.

77) St.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 II-II, q.62, c.1.

78) DH, 3008, 3011항; R. Garrigou-Lagrange, *op.cit.*, pp.343, 345.

79) 참조: 조던 오먼, 앞의 책, 289쪽.

80) DH, 1544, 1578항.

81) 참조: 조던 오먼, 앞의 책, 290쪽.

생명과 초자연적 참된 행복을 갈망하게 되는 것은 인간적 노력이나 도움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과 자신의 약속에 충실하신 하느님에 대한 희망에 기초한다. 이렇게 희망의 덕은 인간이 의지적으로 하느님의 선하심에 의탁하여 영원한 행복을 갈망하게 만든다.⁸²⁾

사랑의 덕, 곧 애덕은 인간으로 하여금 은총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그 자체로 사랑하며 하느님 때문에 자기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는 덕이다.⁸³⁾ 애덕은 하느님 자신과 하느님 자녀들 사이에 초자연적인 친분을 형성시킨다. 하느님과 인간이 맺는 친분은 하느님의 본성에 인간을 참여시키는 것을 뜻하며 그리하여 인간은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를 일으킨다.⁸⁴⁾ 애덕의 형상적인 이유 근거는 하느님의 초자연적인 선하심 그 자체에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애덕을 통하여 하느님의 선물이나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선하신 그분 자체를 사랑하게 된다. 애덕은 우리 이웃도 하느님의 선하심 때문에 사랑하게 한다. 그러므로 애덕은 모든 인간을 포용하는 사랑인 것이며 하느님의 선하심에 기초하여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덕이라 하겠다.⁸⁵⁾ 또한 애덕은 다른 모든 덕들에 앞서는 덕행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을 하느님과 가장 밀접하게 결합시키는 덕이기 때문이다.⁸⁶⁾

3.2. 가톨릭교회 공동체 차원의 치유 접근

3.2.1. 코로나 팬데믹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성사 집전의 문제

3.2.1.1. 국가와 정부 기관의 제한 조치에 대한 신앙의 자유 회복 문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도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일련의

82) Cf. R. Garrigou-Lagrange, *op.cit.*, p.351.

83) Cf. R. Garrigou-Lagrange, *op.cit.*, p.354.

84) 참조: 조던 오먼, 앞의 책, 310쪽.

85) Cf. R. Garrigou-Lagrange, *op.cit.*, pp.355~356.

86) 참조: 조던 오먼, 앞의 책, 311쪽.

집합 제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의 등교 문제와 직장의 재택근무, 다중이용시설물들에 대한 집합 제한 조치, 종교 시설, 특별히 그리스도교계에 속하는 종교단체들의 대면 예배 제한 등이 취해지고 있다.⁸⁷⁾

그러나 종교 단체에 대한 집합 제한 조치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그리스도교 종교 단체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이런 조치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종교단체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이나 비대면 예배를 강제할 경우 해당 종교단체와 대화를 나누면서 협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고 한 번 쉽게 기본권을 제한하기 시작하면 지나친 사회적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다른 부분에 대한 국민 기본권이 쉽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⁸⁸⁾

가톨릭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그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조치들에 상당히 협력하고 있다.⁸⁹⁾ 그러나 신앙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경

87) 참조: 국무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 <http://www.opm.go.kr> (2020.03.2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관련 긴급 입장문”, <https://www.mcst.go.kr>(2020.03.26); 보건복지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휴양시설에 대한 15일간 운영 중단 권고”, <http://www.mohw.go.kr>(2020.03.21).

88) 참조: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3항, 제37조 2항;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2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Dignitatis Humanae)」, 2~4항.

89) 참조: 교황청 내사원, “전 세계적 질병 확산의 현 상황에서 신자들에게 특별 대사를 수여하는 교령”, <https://cbck.or.kr/Notice>(2020.04.03); 교황청 내사원, “전 세계적 질병 확산의 현 상황에서 화해의 성사에 관한 공지(문서번호 255/20/I)”, <https://cbck.or.kr/Notice>(2020.03.24); 교황청 경신성사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태에 즈음하여 (I) (문서번호 153/20)과 (II) (문서번호 154/20)”, <https://cbck.or.kr/Documents/Curia?page=2> (2020.03.25); 교황청 경신성사성,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견진 성사 집전 방법(문서번호 470/20)”, <https://cbck.or.kr/Notice/20201358?gb=K1200>(2020.10.07); 서울대교구, “사제들과 신자분들에게 드리는 담화문”, <http://pds.catholic.or.kr>(2020.02.25); 대구대교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교구 지침”, <http://www.daegu-archdiocese.or.kr>(2020.02.06); 광주대교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교구 지

우 교회는 언제든지 정부와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는 하느님이 부여하신 신자들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며 은총을 전달하는 교회 활동이 제한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주일미사를 비롯하여 성사집전이 제한받는 상황에 대해서 교회는 그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고려하면서도 인간 구원을 위한 하느님 은총의 분배 활동을 자유롭게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⁹⁰⁾ 하느님 말씀 선포와 성사집전, 특별히 영성체를 포함한 미사성제와 고해성사는 신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있어 비대면 형태로 진행할 수 없는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의 기회란 점에서, 감염병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면서도 요구되는 안전 수칙을 준수 하면서 대면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⁹¹⁾

3.2.1.2. 제한된 조건에서 성사 집전 가능성 모색

성사란 비가시적 은총을 드러내고 성덕을 부여하시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고정적으로 설정하신 감각적 표징이다.⁹²⁾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보이는 표징들인 성사를 통하여 인간에게 선사한다. 은총이란 좁은 의미에서 하느님이 지성적 피조물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여하신 초자연적 선물이다.⁹³⁾ 은총에는 상존 은총(尙存恩寵)과 조력은총(助力恩寵)이 있다. 상존은총은 성화(聖化)

침 공지”, <http://www.gicatholic.or.kr>(2020.02.05).

90) 주일미사와 의무 축일에 대한 가톨릭교회 신자들의 의무는 신법에 기초한 규범이며 사도시대, 곧 예수님의 직 제자들의 시대부터 이어오는 것이다. 신자들은 주일 미사와 의무 축일 미사를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생활의 중심이고 개인의 신앙을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함께 고백하는 순간인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는 신앙의 자유와 공동체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성체를 받아 모시는 전례적 행위는 나눌 수 없는 것이고 미사에 관한 집합 제한 명령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를 갖고 검토해야 할 문제다.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가톨릭 교회 교리서』, 2168~2179항, 2182항.

91) 교황청 경신성사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 확산 기간과 그 이후의 전례 거행에 관하여 주교회의 의장에게 보내는 서한(문서번호 432/20)”, [https://cbck.or.kr/Notice/20201347?gb=K1200\(2020.10.16\)](https://cbck.or.kr/Notice/20201347?gb=K1200(2020.10.16)).

92) Cf. A. Tanqueray, *op.cit.*, p.558.

93) Cf. *Ibid.*, p.496.

은총 혹은 의화(義化)은총이라고도 한다. 왜냐하면 죄로 타락한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의롭게 만들며 하느님의 자녀 곧 거룩하신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은총을 선사하기 때문이다.⁹⁴⁾ 조력 은총은 하느님께서 인간이 초자연적인 행위를 하도록 지성을 비추시고 의지를 도와주시는 은총으로 현실에 필요한 초자연적 은총이라 하겠다. 이 은총은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좋은 열망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직접 부여한다.⁹⁵⁾

세례성사를 비롯하여 성체성사(미사성제), 견진성사, 고해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 병자성사는 인간 구원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전달하는 가시적 표징이다. 따라서 교회의 성사 집전은 단지 인간 기본권인 신앙의 자유권을 위한 교회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교회 활동의 본질인 인간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은총을 전달하는 행위란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세상에서 고통의 연장 속에 살고 있는 인간 존재를 그 고통과 악의 뿌리인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며 하느님과 친교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고, 이 세상에서 불완전하기는 하더라도 미래에 완성될 참 행복과 영원한 삶을 어느 정도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사집전 행위이기 때문에 교회의 성사 집전은 구원 사업의 한 부분인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제한이 있지만 교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필요한 예방 조치들을 준수하면서 인간에게 성사의 은총이 전달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사목자들은 매우 지대한 관심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면서 최선의 성사 집전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2.2.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애덕 실천 모색

우리는 앞서 고통은 모든 인간에게 속한 주제로서 모두가 고통 받는 처지에 있다는 면에서 서로 연대성을 형성하고 있고 서로 사

94) Cf. *Ibid.*, p.499.

95) Cf. *Ibid.*, pp.518~519.

랑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복음서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⁹⁶⁾는 바로 고통 받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그 실천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에 대한 우리 각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이 비유는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고 멈추어 서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행동, 곧 애덕의 활동을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자비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고통에 대한 연대성 속에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⁹⁷⁾

고통 받는 사람에 대한 동정심, 자비심에 따른 애덕 행위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 이행해야 할 사랑이라고 마태 오복음의 최후 심판 비유⁹⁸⁾는 우리에게 말한다. 이런 애덕의 실천을 통하여 인간은 고통 받는 인간 안에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고통 받는 예수님을 만나 사랑하면서 그분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⁹⁹⁾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런 자비심에 따른 애덕 행위를 물질 자선 행위와 영적 자선 행위로 구별하여 신자들에게 교육해 왔다. 각각의 자선 행위에는 일곱 가지 구체적인 행위들이 있다. 먼저 물질 자선 행위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속한다: 1.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2. 목마른 이들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 3.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주는 것, 4. 나그네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 5. 병자들을 방문하는 것, 6. 갇힌 이들을 방문하는 것, 7. 죽은 이들을 묻어 주는 것. 그리고 영적 자선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속한다: 1. 의심하는 이들에게 조언해 주는 것, 2. 무지한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 3. 죄인들을 훈계하는 것, 4. 상심한 이들을 위로하는 것, 5. 받은 상처를 용서하는 것, 6. 성가신 사람을 인내하

96) 참조: 루카 10,30-37.

97)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구원에 이르는 고통』, 28항.

98) 참조: 마태 25,31-46.

99)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구원에 이르는 고통』, 30항.

면서 참아 주는 것, 7.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을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해 주는 것이 속한다.¹⁰⁰⁾

이런 자선 행위들은 우리 일상과 멀리 떨어진 것들이 아니며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자주 실천할 수 있는 행위들이다. 우리는 고통 받는 사람을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 찾아야 하고 이 때 만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작지만 사랑 넘치는 행위를 이행해야 한다. 이런 행동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시키는 동시에 이 세상의 구원에 동참시킨다.

특별히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란 기준이 요구되고 실행되어야 하겠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 사회학적 차원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적 요청사항이다.¹⁰¹⁾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연대성에 기초한 것이며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더욱 고통 받는 처지에 놓인 사람에 대한 애덕의 실천인 것이다.¹⁰²⁾ 연대성이라고 하는 기준은 온갖 장벽을 허물고 서로 간의 다리를 건설하면서 세계화된 인류 공동체를 더욱 더 인간다운 공동체로 건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¹⁰³⁾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공동선의 촉진이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는 것처럼 공동선을 촉진하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의무다. 이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은 일정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적인 차원에서 이룩되어야 할 과제다.¹⁰⁴⁾

100) 참조: 베네딕토 16세, 『가톨릭 교회 교리서 요약편』, 2007, 243~244쪽.

101) 참조: 교황 프란치스코, “일반알현”, 2020년 8월 19일, http://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audiences/2020/documents/papa-francesco_20200819_udienza-generale.html(2020.10.13).

102)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사회적 관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7, 38~40쪽.

103) 참조: 교황 프란치스코, “일반알현”, 2020년 9월 2일, http://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audiences/2020/documents/papa-francesco_20200902_udienza-generale.html(2020.10.13).

104) 참조: 교황 프란치스코, “일반알현”, 2020년 9월 9일, http://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audiences/2020/documents/papa-francesco_20200909_udienza-generale.html(2020.10.13).

나가는 말

현재 인류는 코로나19에 따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감염병 방지를 위해 통제되고 제한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일종의 의미 있는 삶을 산 사람이 있다. 그의 삶은 감염병이라는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보여준다. 베트남의 우엔 반 투안 추기경(His Emm. Card. François-Xavier Nguyễn Văn Thuận: 1928~2002)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사이공의 대주교로 임명되고 나서 이틀 후에 바로 공산당에게 체포되어 1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한탄하던 순간 그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이 다가왔다: “비록 하느님의 일은 할 수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느님의 일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 반 투안 추기경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무력하게 팔과 다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아버지 하느님께 봉헌했다.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구원이라는 최대의 업적을 이룩하셨다는 사실을 반 투안 추기경은 깊이 깨닫는다. 그에게 있어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며 이 일은 그 누구도 그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선물이며 임무였다. 축축하고 더러운 감방은 더 이상 그에게 괴로운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가 되었으며 교도관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었다.¹⁰⁵⁾

우리는 앞서 어려움에 처한 인간이 참으로 행복한 상태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그 본래적 소명인 하느님과의 일치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인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하느님과의 일치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라 생활하면서 하느님의 은총

105) 참조: Chau, Andre N. Van(안드레 우엔 반 쩌우), 오영민 역, 『희망의 기적 — 우엔 반 투안 추기경의 생애』, 바오로 딸, 2014, 296~297쪽.

과 덕행, 특히 애덕의 실천을 통하여 가능하며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 물질주의와 현세적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면서 습득된 우리의 마음과 행위들을 하느님과의 일치라고 하는 참된 행복을 위해 요구되는 그리스도교적 덕행의 실천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애덕의 실천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참 행복을 주시는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에 이르도록 한다. 그렇게 보다 더 하느님과 일치된 인간은 다시 애덕과 다른 덕행들을 용이하게 실천하는 경지에 이른다.

또한 이 애덕의 실천은 공동체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은 한 사회의 각 계층 상호간에도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교회 문헌

- 『성경』(201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사목현장”(Gaudium et Spes), 『제2차 바티칸 공의회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2.
- _____,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Dignitatis Humanae), 『제2차 바티칸 공의회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2.
- 베네딕토 16세 교황, 『가톨릭 교회 교리서 요약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7.
-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인간의 구원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9.
- _____, 『구원에 이르는 고통』,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4.
- _____, 『사회적 관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7.
- _____,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

2. 일반 문헌

[단행본]

- Belda, M., *Giuditi dallo Spirito di Dio - Corso di Teologia spirituale*, EDUSC, 2009.
- Denzinger, H. / Hünermann, P., *Enchiridion symbolorum definitionum et declarationum de rebus fidei et morum*, Bologna: Edizioni Dehoniane Bologna, 2009.
- Garrigou-Lagrange, R., *La sintesi tomistica*, Fede & Cultura, 2016.
- Mondin, Giovanni B., *Storia dell'Antropologia Filosofica*, vol.1, ESD, 2001.
- St. Thomas Aquinas, *In I Sent.* Bologna: ESD, 2001.
- _____, *Summa contra Gentiles*, Bologna: ESD, 2001.
- _____, *Le questioni disputate*, Bologna: ESD, 2001.
- _____, *Summa Theologia*, Bologna: ESD, 2014.
- _____, *Comnt. Evang. S. Johannis*, Bologna: ESD, 2019.
- Tanquerey, Adolf, *Brevior Synopsis Theologiae Dogmaticae*, Desclée & Socii, 1946.
- Aumann, Jordan(조던 오먼), 이흥근 역, 『영성신학』. 분도출판사, 1987.
- Aristoteles(아리스토텔레스), 강상진·김재홍·이창우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도서출판 길, 2017.
- Chau, Andre N. Van(안드레 우엔 반 쩌우), 오영민 역, 『희망의 기적 —우엔 반 투안 추기경의 생애』, 바오로 딸, 2014.

- Copleston, Frederick C.(프레드릭 코플스톤), 김보현 역, 『그리스 로마 철학사』, 북코리아, 2015.
- Mondin, Giovanni Battista(조반니 바티스타 몬딘), 허재운 역, 『인간: 철학적 인간학 입문』, 서광사, 1996.
- Pieper, Josef(요셉 피퍼), 김형수 역, 『그리스도교의 인간상 — 덕에 대하여』,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8.
- Rovighi, Sofia V.(소피아 로비기), 이재룡 역, 『성 토마스의 철학적 인간학』, 가톨릭출판사, 2014.
- St. Thomas Aquinas(성 토마스 아퀴나스), 이재룡·이경재 역, 『영혼에 관한 토론 문제』, 나남, 2001.
- 장영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삶의 기술』, 서광사, 2018.

[정기간행물]

- 김은일,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감염병에 대한 헌법적 해석」,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7권, 제2호(2019), 한국의료법학회.
- 박정일,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조치에 관한 소고」, 『의료법학』, 제16권, 제1호(2015), 대한의료법학회.

[기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인터넷 자료

교황청 경신성사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태에 즈음하여 (I) (문서번호 153/20)과 (II) (문서번호 154/20)”, [https://cbck.or.kr/Notice\(2020.03.25\)](https://cbck.or.kr/Notice(2020.03.25)).

_____,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 확산 기간과 그 이후의 전례 거행에 관하여 주교회의 의장에게 보내는 서한(문서번호 432/20)”, [https://cbck.or.kr/Notice/20201347?gb=K1200\(2020.10.16\)](https://cbck.or.kr/Notice/20201347?gb=K1200(2020.10.16)).

_____,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견진성사 집전 방법 (문서번호 470/20)”, [https://cbck.or.kr/Notice/20201358?gb=K1200\(2020.10.07\)](https://cbck.or.kr/Notice/20201358?gb=K1200(2020.10.07)).

교황청 내사원, “전 세계적 질병 확산의 현 상황에서 화해의 성사에 관한 공지(문서번호 255/20/I)”, [https://cbck.or.kr/Notice\(2020.03.24\)](https://cbck.or.kr/Notice(2020.03.24)).

- _____, “전 세계적 질병 확산의 현 상황에서 신자들에게 특별 대사를 수여하는 교령”, [https://cbck.or.kr/Notice\(2020.04.03\)](https://cbck.or.kr/Notice(2020.04.03)).
- 국무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
[http://www.opm.go.kr\(2020.03.21\)](http://www.opm.go.kr(2020.03.21)).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관련 긴급 입장문”,
[https://www.mcst.go.kr\(2020.03.26\)](https://www.mcst.go.kr(2020.03.26)).
-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정부대책회의 브리핑”,
[http://www.mohw.go.kr\(2020.02.23\)](http://www.mohw.go.kr(2020.02.23)).
- 천주교 광주대교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교구 지침 공지”,
[http://www.gicatholic.or.kr\(2020.02.05\)](http://www.gicatholic.or.kr(2020.02.05)).
- 천주교 대구대교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교구 지침”,
[http://www.daegu-archdiocese.or.kr\(2020.02.06\)](http://www.daegu-archdiocese.or.kr(2020.02.06)).
-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들과 신자분들에게 드리는 담화문”,
[http://pds.catholic.or.kr\(2020.02.25\)](http://pds.catholic.or.kr(2020.02.25)).
- 프란치스코 교황, “일반알현”, 2020년 8월 5일,
[http://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audiences/2020/documents/papa-francesco_20200805_udienza-generale.html\(2020.10.13\)](http://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audiences/2020/documents/papa-francesco_20200805_udienza-generale.html(2020.10.13)).
- 프란치스코 교황, “일반알현”, 2020년 8월 12일,
[http://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audiences/2020/documents/papa-francesco_20200812_udienza-generale.html\(2020.08.12\)](http://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audiences/2020/documents/papa-francesco_20200812_udienza-generale.html(2020.08.12)).
- 프란치스코 교황, “일반알현”, 2020년 8월 19일,
[http://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audiences/2020/documents/papa-francesco_20200819_udienza-generale.html\(2020.10.13\)](http://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audiences/2020/documents/papa-francesco_20200819_udienza-generale.html(2020.10.13)).
- 프란치스코 교황, “일반알현”, 2020년 8월 26일,
[http://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audiences/2020/documents/papa-francesco_20200826_udienza-generale.html\(2020.10.13\)](http://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audiences/2020/documents/papa-francesco_20200826_udienza-generale.html(2020.10.13)).
- 프란치스코 교황, “일반알현”, 2020년 9월 2일,
[http://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audiences/2020/documents/papa-francesco_20200902_udienza-generale.html\(2020.10.13\)](http://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audiences/2020/documents/papa-francesco_20200902_udienza-generale.html(2020.10.13)).
- 프란치스코 교황, “일반알현”, 2020년 9월 9일,
[http://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audiences/2020/documents/papa-francesco_20200909_udienza-generale.html\(2020.10.13\)](http://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audiences/2020/documents/papa-francesco_20200909_udienza-generale.html(2020.10.13)).
- 프란치스코 교황, “팬데믹 시기를 위한 특별 기도회 묵상”,
[https://w2.vatican.va/content/francesco/it/homilies/2020/documents/papa-francesco_20200327_omelia-epidemia.html\(2020.09.27\)](https://w2.vatican.va/content/francesco/it/homilies/2020/documents/papa-francesco_20200327_omelia-epidemia.html(2020.09.27)).

현재 인류는 코로나19에 따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감염병 방지를 위해 통제되고 제한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고통에 처한 인간이 참으로 행복한 상태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그 본래적 소명인 하느님과의 일치에 도달해야 한다. 그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인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하느님과의 일치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라 생활하면서 하느님의 은총과 덕행, 특히 애덕의 실천을 통하여 가능하며 필요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물질주의와 현세적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면서 습득된 우리의 마음과 행위들을 하느님과의 일치라고 하는 참된 행복을 위해 요구되는 그리스도교적 덕행의 실천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애덕의 실천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참 행복을 주시는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에 이르도록 한다. 그렇게 보다 더 하느님과 일치된 인간은 다시 애덕과 다른 덕행들을 용이하게 실천하는 경지에 이른다.

또한 이 애덕의 실천은 공동체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은 한 사회의 각 계층 상호간에도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주제어: 구원자, 사추덕, 예수 그리스도, 인간 고통, 코로나19, 팬데믹, 향주삼덕